

10 사람

13년 동행 후마 떠나다, “인간은 언제나 가치를 추구”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정년 맞은 이영준 전 후마 학장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양교육의 초기 모델 설계부터 2011년 정식 도입과 시행 14년 차가 되기까지, 후마 교양교육연구소장과 학장을 거쳐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현직을 내려놓은 이영준 전 학장. 이 전 학장을 만나 후마 정착 그 뒤편의 이야기와 성인에 접어든 청춘에게 교양교육이 필요한 까닭을 들어봤다.

우리학교만의 교양교육
그 초석이었던
‘인간의 가치탐색’

2011년, 우리학교는 인문학 중심의 후마 교양교육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이를 채워 나갈 인문학 전문가를 각지에서 불러 모으고 있었다. 미국 대학 강사와 한국문학 문예지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 전 학장도 연락을 받았다. “경희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라는 권유와 함께 지금의 ‘인간의 가치탐색’ 초안본이 도착했다.

도착한 초안본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초안본을 읽어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문학 전공자인데 내가 공부할 때 이 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죠. 지난 몇십 년간 인문·사회·과학계 담론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요. 책 속에 현재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 수준의 인문·사회·과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해 후마 교양교육연구소장이 됐고, ‘인간의 가치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펴낸 일원이 됐다. 우리학교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교양교육연구소장을 지내며 후마의 교양교육은 전공 위주의 교육 문화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느껴온 이들의 집합체와 같다고 설명했다. “미래에는 대학이 단순한 직업 학교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될뿐더러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 평생을 써먹을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느꼈어요. 산업역군 보급이 필요했던 과거 대학과 달리 지금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첨단사회로 거듭날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의 전공’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견토록

하는 ‘자기 탐색’이라는 것이 초기 후마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었다.

그렇기에 ‘인간의 가치탐색’이라는 이름을 곱씹어보길 원했다. 그 이름이 이야기하듯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탐색’ 뿐만 아니라 ‘후마’의 대전제기도 하다. “인간의 가치탐색은 인간에 대한 정의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인간과 삶이 무엇인지 헤매는 신입생에게 ‘이것이 바로 인간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 학장은 교양교육이야말로 젊은 친구들이 가져야 할 자유의 폭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양교육도 유연할 수 있어야 해
메달라버린 학생들 쉬게 할
‘예술 교육’도 필요

물론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후마를 개별적으로 설립해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인 이들도 적지 않았다. 후마 교양교육이 도입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인식 전환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한다. “후마 교양교육 연구소장을 지낼 때 전국 공과대학(공대) 학장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공대 학생이 왜 칸트를 해야 하나요 묻더라고요.” 이 전 학장은 농담하듯 대답했다. “공돌이는 사람도 아닙니까?”

후마 교양교육이 인문학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다. 이공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2016년부터는 자연과학을 다루는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2018년부터는 ‘소프트웨어기초교육(SW)’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 전 학장은 시대의 흐름이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으로 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교양교육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세계의 창조’에만 부합한다면 교양 과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서양 근대사 내용이 담겼던 ‘우리가 사는 세계’가 ‘세계와 시민’ 과목으로 대체된 것 역시 한국 사회에서 느껴야 하는 시급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한 결과였다. “현시대에서는 한국인이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신을 가르치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전 학장은 새롭게 개설하고 싶은 교양과목으로 망설임 없이 ‘예술 교육’을 꼽았다. 예술은 인간이 꿈꾸는 미래나 이상을 향한 표현으로, 예술의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퇴직 후 한국연구원에서 개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학장의 집무실 한 켠에는 ‘후마’ 교양 교재들이 두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사진 출처=김동희 기자)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예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특성과도 관련 있다. “한국 대학생은 대학에 올 때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서 와요. 10대를 치열한 학업으로 힘들게 보내고 대학에 왔을 때 너무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 과목이 있다면 학생들을 좀 더 정신적으로 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학생들 본인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묻는 적이 없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한 발견 중 하나다. 그래서 개설된 것이 영화 만들기, 동물권 등, 학생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수업들이었다. 한 편으로는 학생들이 제안한 수업들에서 다시 한번 일률적인 한국 교육을 실감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제

안한 수업들이 10년 전 선배들이 제안한 수업들과 똑같다고 놀린 적이 있어요. 이것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교양교육으로
기존의 나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길”

후마에서의 13여 년 연구 생활을 끝으로 지난 2월에 정년퇴직했다. “내가 후마에 오지 않고 문학 연구자로만 살았다면 몰랐을, 세상을 보는 큰 눈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후마 교육을 위해 스스로 공부한 것이 나를 키웠어요. 그래서 후마에서의 경험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곳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 영광이었어요.”

한 편으로는 “초창기 후마 교양교육의 의미가 퇴색될까 염려도 있다”

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렇기에 후마라는 교양교육 모델을 끊임없이 학교 구성원과 현직자에게 확인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만큼 또 한 번 누군가가 힘차게 개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설레는 마음을 갖고 후마 교재를 구입한 신입생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했다. “교재 어느 한 구석에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말대로 따라가려 하지 말고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의심하세요. 결국 목표는 어른을 키우는 거거든요. 어른이란 독자적인 판단 능력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에게 배운 지식이나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새로 재구성,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강요하는 스승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